

橘隱 金瀏의 文學的 基盤과 詩의 樣相*

김준옥**

〈차례〉

- I. 序論
- II. 橘隱의 文學的 基盤
 - 1. 生活環境과 時代的 背景
 - 2. 文學의 思想的 基底
- III. 詩의 樣相
 - 1. 끊임없는 自己省察
 - 2. 自然의 美的 觀照와 意趣
 - 3. 現實의 批判的 認識
- IV. 結論

I. 序論

외로운 고도 거문도에서도 유명한 문장가가 있었다. 경주 김씨의 가통(家統)을 이어 받은 곽은(橘隱) 김류(金瀏, 1814~1884)가 바로 그이다. 선생의 생애와 집안 내력은, 그의 문집¹⁾ 중 자술한 가덕편(家德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²⁾

곽은 집안이 거문도에 자리를 잡은 것은 7대조 호은(湖隱)이 난세를 피

* 이 논문은 2001년도 여수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여수대학교

1) 金瀏, 『國譯橘隱齋文集』, 光州日報出版局, 1984. 이하 『문집』으로 표기

2) 『문집』, 『家德篇』, 291~292쪽.

하여 동도(東島)에 입도하고서부터이다. 곁은은 조부모 정탁(鼎宅)과 고씨, 부모 지권(志權 1796~1873)과 김씨의 뒤를 이어 1814년에 이곳 동도 곁동에서 태어났다. 장대한 체격을 갖춘 곁은은, 조부모와 부모가 모두 문장이 있고, 자손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했던 터라, 일찍이 학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서 서도(西島)의 만회(晩悔) 김양록(金陽錄 1806~1885), 장흥(長興)의 남파(南坡) 이희석(李僖錫)와 추려(秋旅) 김대원(金大源) 등과 함께 수학했다. 서당에 나갔을 때, 그는 “배운다는 것은 곧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³⁾며, 스승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서도 혼자서 부지런히 책을 읽었다.

학문이 어느 정도 이르렀다고 판단한 그는 과거에 합격하기는 티끌 좁는 것이나 같다고 쉽게 생각하고는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이내 바뀌고 말았다. 장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사람은 학문이 아니면 참된 인간이 될 수 없으며, 문장은 시간이 남으면 익히는 일이고, 과거 급제는 운명에 있는 것”⁴⁾이라 생각하고는 일찍이 성리철학(性理哲學)의 깊은 이치를 깨우친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 선생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그 길로 “옛날 사람들은 문장을 익히는 공부는 도학(圖學) 밖의 일이라고 하였더니 내가 듣는 바로는 기 선생께서 근본적인 학문으로 인재를 만들어 낸다 하시니 어찌 찾아가지 아니할 것인가?”⁵⁾ 자문하고는 두 차례나 집지서(執贄書)를 올려 30의 나이에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문하로 든다.

스승의 질정을 받으며 수학한 끝에 학문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자 곁은은 “구하면 얻지 못할 것이 없고 가려하면 이르러가지 못할 곳이 없다”⁶⁾는 노사의 마지막 가르침을 품에 지니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궁벽한 도서의 문물을 개조하고 벽촌을 변화시킨 문인으로, 애향 운동가로, 교육자로 활동하다가 1884년 4월에 우

3) 『문집』, 「行狀」, 307~310쪽.

4) 『문집』, 「行狀」, 307~310쪽. 人生斯世非學問無以爲人文章即其餘事耳科第有命焉.

5) 『문집』, 「橘隱齋遺稿序」, 35~36쪽. 古人以文章爲餘事吾聞奇先生以本源之學作成人材盡往歸.

6) 『문집』, 같은 곳. 有求無不得有往無不到.

환으로 완도 땅 청산도에서 세상을 떴다.

이처럼 고향은 학문을 하기에, 서책을 편찬하기에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절해의 고도(孤島)에서 태어났지만, 제자들이 수습해 놓은 문집에서 보듯, 중국 진(秦) 나라 때 서경에 밝았던 복생(伏生)과 초 나라 때 위대한 학자 진량(陳良)에 견줄 만한 인물이었다.⁷⁾

다행히, 그의 격물(格物) 궁리(窮理)의 학문과 사상들의 흔적이 지묵(紙墨)에 남아 있는데, 시편만도 310여 편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해 본 바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다. 후손이라면 후손이라 할 수 있고, 거문도와 백도에 대한 소박한 원고를 상제한 바 있는 후학으로서, 필자는 그의 국역된 유고집을 바탕으로 고향의 문학적 기반과 시의 양상을 살피기로 했다.

II. 橘隱의 文學的 基盤

1. 생활환경과 시대적 배경

곶은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활환경과 남도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 배경을 살피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문학은 이런 일련의 주변 영향을 당연히 받기 때문이다.

곶은이 태어나고 생활했던 거문도는 물로부터 근 3백 리나 떨어진, 여수와 제주도 중간 해역에 위치한, 서도(西島)·동도(東島)·고도(古島)를 함께 이르는 도서로 삼도(三島)니 삼호(三湖)니 하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보아 그리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⁸⁾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료는 없으

7) 『문집』, 「행장」, 308쪽 참조.

8) 그 근거로 1967년과 1968년에 걸친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남해도서 고고(考古)조사팀의 조사 결과 동도 죽촌리에서 석기류(마제 석부 2개)와 석총(石塚) 3기, 및 청자 파편이 발견된 점, 서도에서 한나라 시대의 화폐인 ‘오수전(五銖錢)’이 다량으로 발견된

나 이곳에서 출토된 석기류와 석충, 청자 파편, 한나라 시대의 화폐인 오수전(五銖錢), 조개더미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곳에 관한 기록이 더러 눈에 띈다. 『세종대왕실록』에는 ‘왜구들이 고초도에 와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과 조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고초도는 고도(古島)와 초도(草島)를 합해 부른 것으로 고도가 지금의 거문도가 아닌가 추정된다.⁹⁾ 이후, 왜구들의 침범이 잦았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 명종 11년(1555) 7월 “제주 목사가 왜선 5척을 불태우고 격퇴했으며,¹⁰⁾ 선조 20년(1587) 2월 손죽도(選竹島) 앞 바다에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 당시 녹도만호李大源 장군이 이를 격퇴하다가 희생당했다는 기록도 있다.

곶은이 살았던 당시에는 1884년 독립당의 지도자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할 때 거문도에 기착하여 ‘김옥균 가착(金玉均 假着)’이라 쓰고 시 한 수를 써주고 갔다고 전해진다. 또, 1851~1916년 사이에 의병의 선봉장 임병찬, 고일청(高一淸), 김익성(金益聲), 안주흡(安周洽) 등의 적거지였다.

원래, 곶은이 살았던 시대에 고도는 무인도였는데, 1885년 영국군의 무단 점령 이후 영국군과 일본인들에 의하여 거문도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아무래도 서도나 동도 사람들은 고도를 왜섬(倭섬) 또는 이섬(夷섬)이라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당시 민족적 반일 감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 후기는 밖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외세로부터의 정치·문화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변화를 실감해야했던 복잡한 시대였다. 특히, 실학으로부터 촉발된 실사구시의 학풍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익의 성

9) 『이조왕조실록』, 『세종실록』
(甲寅…遂命禮曹致書宗貞盛曰.往年冬月.孤草兩島釣魚定約之時.足下使送之人除兵器.其船隻大中小及所騎人數明白具錄.給文引.送到慶尙道巨濟知世浦.改受萬戶文引.前去孤草兩島釣魚畢後.回到知世浦.納還萬戶文引.仍納船稅…)”

10) 『이조왕조실록』, 『명종실록』 권21 참조.

호학파의 뒤를 이은 북학파(北學派)가 형성되어 청조 문화(淸朝文化)의 영향을 받았고, 남인 학자들을 관심으로 천주교가 들어와 신유사옥(辛酉邪獄 1801)이니 기해사옥(己亥邪獄 1839)이니 하는 불상사 속에서 서학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조정의 기강은 바로 서지 못하였고, 세도가들과 지방관의 횡포로 말미암아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 등 삼정(三政)의 문란은 극에 달했으며, 순조 때에는 한재와 수재가 겹치고 설상가상으로 역질까지 번져 민생은 그야 말로 말이 아니었다. 드디어 홍경래(洪景來)의 난(1811) 등 크고 작은 민란이 사방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고종 때에는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운양호사건(1875), 강화도조약(1876),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동학혁명의 발생과 갑오경장(1894), 청일전쟁(1894~1895), 을미사변(1895), 아관파천(1896), 대한제국의 성립(1897), 러일전쟁(1904), 을사조약(1905), 고종퇴위(1907) 등 외세로부터의 침탈과 같은 여러 사건이 있어났다. 이러한 시대적 갈등과 환경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나 염치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런 시대 상황은 그대로 외로운 섬 거문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구 열강들까지 한반도를 이웃거리게 되고, 드디어 거문도가 그들의 전진 기지나 다름이 없었다. 거문도가 서양에서는 포트 헤밀턴(Port Hamilton)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거문도를 포트 헤밀턴(Port Hamilton)이라 명명하고 서방 세계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영국 해군 군함 사마랑(Samarang)호의 벨처(Edward Belcher) 함장이었다. 그는 군함을 이용, 제주도에서 거문도 해역까지 약 1개월 간 탐사 후 귀국하여 1848년 『Samarang호 탐사 항해기(Narrative of the Voyage HMS Samarang)』를 2권으로 출판했는데, 이때 거문도를 당시 영국 해군성 차관의 이름을 따서 ‘포트 헤밀턴’이라 명명한다. 뒤이어 악티온(Actaeon)호 함장 워드(John Ward)와 부속선 도브(Dove)호의 함장 블록(Bullock)이 1859년 5월 6일 거문도에 도착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약 2주일 간 제주도 해역과 조선 남해안을 탐사하였다. 이 때, 거문도의 유학자 곁은 선생은 영국 군함에 동승한 중국인 오열당(吳悅棠)과 필담을 주고받았는데, 그 전후사

가 「해상기문」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배의 이름은 ‘도부선(道夫船)’, 선주(함장)는 ‘북록갈(北祿葛)’이라 했고, 기록된 일자는 철종 10년(1859) 4월 초 4일과 5월 12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거문도에 내항한 인물은 1854년 4월 러시아 함대를 이끌고 온 푸차친 제독으로 그에 관한 기록도 역시 「해상기문」에 남아 있다. 이에 의하면, 이들은 거문도에 11일 동안 체류하면서 섬 주민들과 접촉하기도 하고 산책도 하였으며, 섬 주민들을 팔라다호로 초청하여 술과 다과 등을 대접하기도 했는데, 이 때도 궂은의 필담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푸차친 제독이 조선 정부에 보내는 개항 요청문은 러시아 황제의 특사 명의로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최초의 외교 문서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료이자, 외교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궂은 선생의 「해상기문」에 기록되어 있다.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도 거문도에 대한 군사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었다. 거문도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중간 기항지였기 때문이었다. 1866년 8월, 대동강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된 와추셀(Wachusett)호 함장 슈펠트(Shufeldt) 중령은 그 임무를 마친 후 1867년 1월 30일 거문도에 도착하여, 2월 3일까지 5일 간 정밀한 해역 탐사 활동을 하면서, 거문도에 상륙하여 주민들과도 접촉했고, 이 섬이 장차 미국 해군 기지로의 유효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극동 항구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거문도가 가장 적절한 중간 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885년 4월 11일 거문도 선점권 확보를 의결한다. 곧바로 중국 주둔 함대 사령관 윌리엄 도웰(William Dowell) 중장에게 거문도를 접수할 것을 명령하니 도웰 제독은 3척의 군함을 끌고 와 4월 15일부터 무단 점거에 들어갔다. 그들은 우선 고도(古島)에 관측소와 막사를 짓고 홍콩까지 해저 전선까지 설치하였다. 소위 거문도사건이다. 이에 조선 정부도 유사당상(有司堂上) 엄세영(嚴世永)과 고용 외국인 목인덕(穆麟德 P. G. Möllendorff)을 현지로 급파하여 그들의 무단 상륙을 항의하기도 했으며, 외무대신 김

윤식은 청나라를 통하여 철군 교섭을 벌이기도 했다. 2년 후 영국군은 1887년 2월 28일 23개월 동안 게양했던 영국기를 내리고 완전히 철수했다.

일본도 거문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1888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만든 『朝鮮地誌略』 「全羅道之部」에는 거문도에 대한 내역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만큼 거문도는 한반도와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여 예부터 왜구들의 출몰이 잦은 곳이었다.

2. 文學의 思想的 基盤

이러한 생활환경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곁은은, 마치 노사가 벼슬길에 나아가지도 않고 장성에서 담대헌(澹對軒)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일찍이 성리철학(性理哲學)의 깊은 이치를 깨우치고 벼슬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고향에서 낙영재(樂莢齋)를 짓고 후학들과 학문에 전념했던 거문도의 거벽(巨擘)이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곁은은 과거 길에 길을 돌려 당시 노사의 문하로 들어가 물의 벗들과 교유(交遊)하며 학문과 시문을 익힌다. 그가 노사의 문하로 드는 데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대범 우리의 道는 평탄한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人間과 문자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평탄한 길이 있으니 그 것은 君臣과 父子가 윤리가 있기 때문이요, 詩書와 禮樂이 정치하는 바인즉 떳떳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率行되는 것이며, 또 君子가 履行할 바라는 옛말이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말세가 된지 오래돼 자신들의 각자 道를 정도라 하는가 하면 十字街의 열풍은 온 天下를 자유자재로 거침없이 설교하면서 인간들을 울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하고 지름길로 불러내어 드디어 後學으로 하여금 어두운 길을 더듬어 걸어가게 하고 있으니 우리 正道가 오히려 쇠퇴하여 잡초로 덮인 격이 되었습니다.

小生 역시 湖海에서 길을 잃어 혹은 산골에서 헤매다가 험악한 곳도 걸어 보았으며 혹은 깊은 물 속에서 빠져 보기도 하였으며, 아침에는 楊朱처럼 갈림길에서 눈물을 흘렸고, 해저물 때는 阮籍이 가던 길을 걷다가 눈물도 흘렸답니다.

십 년 세월을 서성이는 동안 공부는 반걸음도 진전되지 못하던 차 다행이 한길을 찾아 스승님의 집을 바라보았고, 스승님의 문하에 불쑥 들어가 典法과 禮儀의 綱領, 義理의 綜核, 文章의 機軸을 배운 후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제야 옳다는 것과 洙泗 洛閩의 계통적인 단계를 여기에서 알았습니다.¹¹⁾

노사에게 제자가 되겠다며 예물을 바치면서 보낸 위와 같은 편지글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향은 당시의 도덕이 무너져 버린 사회를 한탄하고 있었고, 천주교 확산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가 이처럼 어지럽게 된 데에는 공자(孔子)와 정주자(程朱子)의 가르침이 희박해진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전법(典法)과 예의(禮儀)의 강령을 터득하고, 사물의 본말을 종합하여 밝히며, 문장의 중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노사의 문하로 들어간 것이다.

그의 문학적 기반이 되는 사상적 배경도 노사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노사는 순창에서 태어나 거의 일생 동안 장성에 강학(講學)의 터를 잡은, 성리학의 새로운 세계를 연 철학자요 사상가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왕권의 누수와 외척들의 위정 등으로 인해, 외세는 거문도 등에서 득세하기 시작했고, 대내적으로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마저 사분 오열(四分五裂)이 되어 도덕이니 질서니 하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에 격분한 노사는 삼정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개혁 책으로 군포와 환곡의 폐지 등을 주장한 「임술의책(壬戌擬策)」을 자술하여 임금에게 직접 올리려 했고,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병석에 누어 식음을 전폐하고 두 번이나 「丙寅疏」를 올려 서양과의 통상 금지, 내부의 기강 확립, 국가의 폐습 등을 통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진정서를 비롯한 그의 저술을 보건대, 여러 차례 벼슬까지 사양한 노사는 이런 당시의 시대와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성리학에 의한 인간의 가치관 정립에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의 학문적 이데올로기로써 신앙처럼 믿어 온 여기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¹²⁾는 사

11) 『문집』, 『蘆門集叢書』, 212쪽.

12) 安晉吾, 『湖南儒學의 探究』, 以會文化社, 1996, 323쪽.

실을 알 수 있다. 곧, 모든 도덕적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기(理氣), 선악(善惡),性情(性情)의 구별과 지극한 천명(天命)의 실현 및 선(善)의 발현을 국가의 절대적 이념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이기(理氣)에 관한 한 노사의 중심 사상은, 기(氣)는 이중사(理中事)로서 이기(理氣) 일체(一體)의 유리(唯理)로 집약되는데¹³⁾, 유리 사상은 단순히 공리공론적 이론이 아니라 성현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실용 정신까지 내포되어 있다. 넘쳐지 못한 가계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승 관계가 없었던 노사의 이 논리는 자신의 학문과 세계관을 스스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독특한 지론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게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과 자연스럽게 닿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사의 위정척사사상에는 개국·개화를 반대하는 척화척사(斥和斥邪)의 배타성과 성리학 수용의 보수성이 나타나 있다. 또, 서양의 침략성을 간파한 역사적 통찰력을 통하여 애국 우국의 민족 자존 사상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 곧, 노사의 실용적 유리 사상은 한말 위정척사 운동의 지도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다했다고 말 할 수 있다.

노사는 호남과 영남 지방에 걸쳐 600여명에 이르는 제자와 그 제자들이 기른 제자들까지 합하면 4천여 명의 노사학단(蘆沙學團)을 거느린 큰 학자였다.¹⁴⁾ 따라서 곁은을 비롯한 그의 문하생들은 당연히 노사의 사상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곁은은 위와 같은 실용적 유리 사상으로 집약되는 스승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은 대표적 문하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곁은 에 대한 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

橘隱 金澗 先生은 우리 六代 先祖의 蘆沙 先生의 門下에 唯一한 經史文學의 巨峰으로 特히 鄉里는 勿論 멀리 莞島를 비롯해 島嶼海岸地方에 數 많은 門徒들을 輩出하여 家家戶戶 全域에 걸쳐 先生의 影響을 받지 않은 者가 別로 없어 傳

13) 裴宗浩, 『韓國儒學史』, 연세대출판부, 1986, 130~134쪽 참조.

14) 安晉吾, 위의 책, 417쪽 참조.

統의 脈絡 속에서 忠孝 愛親 敬畏의 精神史를 크게 남겼으며, 巨文島에 英國軍 其他 異樣船 侵犯에도 또한 憂國의 表情에서 學問으로 侵略을 막아내고 橘隱文集과 海上奇聞을 著述하여 좋은 史料를 남기신 巨儒로서 推仰받는 분이다.

...(중략)...

先生은 經史文學에 精通하여 詩文과 더불어 戰術, 藝能에도 뛰어 났는데, 科擧에는 뜻을 버리고 오직 學問에만 專心하였는데, 이는 當時 혼탁한 社會 그리고 學派와 黨爭 등의 緣由에서였다.¹⁵⁾

굼은의 행적과 업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881년(고종 18) 유생을 이끌고 정부의 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를 올려 호남의 소수(疏首)라 불린 기우만(奇宇萬, 1846~1916)도 굼은을 스승으로 회고하며 격물궁리의 학문을 칭송하고 노사 선생으로부터 배운 대로 생도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¹⁶⁾

이처럼 굼은은 노사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은 학자로 평가할 수 있는데, 먼저 그의 사상을 말하면 노사의 그것과 같이 주리적(主理的)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마다 氣質의 性이 존재하고 있다면 天命의 性情은 어디에 머물러 존재하는가? 性은 理일 뿐이다. 性을 인간의 문제로 귀속시켜 잠깐 말하자면 性은 인간의 氣質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만약 기질이 없다면 理도 편안히 머무를 곳이 없게 된다. 비유컨대, 물은 땅을 떠날 수 없고, 불은 나무를 떠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 天命의 性은 이미 氣質을 떠날 수 없으니, 이는 따로 하나가 되어 허공에 매달린 것이 아니다. 다시 무엇을 지적하여 이룸 할 것인가?

말하건대, 性은 理와 一本으로써 처음부터 彼此라는 경계가 없고, 中正한 데서 나오면 天命之性이라 이르고, 偏倚한 데서 나오면 氣質之性이라 이른다. 인간이 능히 대단한 힘을 내어 기질의 편벽함을 버린다면 반드시 천성의 기질로 변화될 것이다.¹⁷⁾

15) 『문집』, 「蘆沙 門下の 橘隱과 松沙(奇浩仲)」, 28쪽.

16) 『문집』, 「橘隱齋遺稿序」, 35쪽.

17) 『문집』, 「名克性說」, 213~214쪽.

위의 인용문은 늦은 나이에 사기(史記)와 공맹(孔孟)의 문장을 깨우치고 자신에게 작명을 청한 후학에게 극성(克性)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살펴보면, 그 중심은 노사의 이기가 하나로 존재한다는 이기일체관(理氣一體觀)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곁은은 이어 도(道)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성(成)과 경(敬)으로써 날마다 세 번 반성할 것, 예를 갖춘 용감하고 정직한 행동을 할 것, 자립할 수 있도록 결단성을 노력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곁은이 그의 스승처럼 성리(性理)의 실천적 도덕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곁은은 인성론뿐만 아니라 우주론의 태극(太極)·음양(陰陽)과 이기(理氣)의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주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태극에 관한 시각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태극을 이(理)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극을 기(氣)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곁은은 전자를 주장한다.

만물의 근원은 태극이며, 태극이 움직일 때는 양(陽)을 만들어 내고, 고요히 있을 때는 음(陰)을 만들어 낸 것이며, 또다시 양이 변하여 음과 합하여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의 오행(五行)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므로 오행은 하나의 음양인 것이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근본 무극(無極)인 것이다.¹⁸⁾

이처럼 곁은은 인성론이든 우주론이든 전통적인 성리학으로써 이를 설명하며 만물 가운데서도 사람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성인(聖人)들의 실천(實踐) 궁행(窮行)을 본받아 중정(中正)한 도(道)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 독살스런 사람이 되지 말 것, 교만하지 말 것, 학문이 독실하지 못함을 항상 근심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일련의 사상적 바탕은 그대로 후학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낙영재

18) 『문집』, 「太極圖說」, 223쪽.

19) 『문집』, 「自警說」, 226쪽.

(樂英齋)를 새로 짓고 쓴 상량문(上樑文)²⁰⁾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곧, 곁은은 낙영재에서 자신이 이 사회의 차축(車軸)이 되어 잠자는 인생들 깨우쳐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서 그의 사상적 바탕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곁은의 사상이 어떻게 문학으로 실천되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음 인용문 하나만으로도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슬프다. 세상의 수준이 낮아진 지 오래되어 벼슬을 바라는 학풍이 일어나고 章句의 익힘이 하나의 버릇이 되어 한 글자라도 교묘하게 하여 스스로 교만을 부리며, 한 수의 詩韻이라도 기특하게 하려고 다투어 纂繡組織을 대단한 공부라 하고, 纂鏤雕繪하는 것을 장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風·雲·月·露를 읊은 모임이 요즈음에 이르러 많아졌다.

대체적으로 歌曲의 유행된 것과 詩律이라는 五言七言이 모두 風雅의 變體에서 출발되어 歷代마다 숭상하였기 때문에 누가 감히 잘잘못을 의논할 것인가? 그러나 지나친 자랑과 음탕하고 교묘한 것은 진실로 우리 선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할 것은 아니니 이것을 어찌 성현들의 가르치는 본뜻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오직 마땅히 학문을 강하되 정밀하게 토론하여 그 根柢를 배양하고, 제작하되 깊이 연구하여 그 枝葉이 발달한 것은 화로에 쇠를 불린 것처럼 정체가 반드시 빛날 것이요, 銅器에 국 맛이 저절로 생겨난 것과 같다.²¹⁾

위의 인용문은 당(黨)을 함께 한 양노황(梁魯璜, ?~?) 등이 설락(說樂)으로 이름 지은 계(契)를 조직하고 그 제목의 뜻이 어떠한가를 물어오자 곁은이 문학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서문이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곁은의 문학에 대한 견해는 효용론에 입각한 지론임이 드러나고 있다.

유학자들은 시의 본질은 풍교(風敎),性情(性情), 이기(理氣)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시가 흥겹게 할 수 있고, 보게 할 수 있고, 무리 짓게 할 수 있고, 원망하게 할 수 있다. ‘가까이 어버이를 섬기게 하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게 할 수 있으며, 조수(鳥獸) 초목(草木)의 이름을 많이 알

20) 『문집』, 『樂英齋上樑文』, 242쪽.

21) 『문집』, 『說樂契序』, 247쪽.

계도 한다'22)는 『논어(論語)』 「양화편(陽貨編)」의 기록에서 그 원류를 찾는다. 또, 이 효용론적 문학관은 풍아(風雅) 곧, 국풍(國風)과 대아(大雅) 소아(小雅)가 따로 엮어진 『시경(詩經)』도 그 전범(典範)이 되고 있다.

이런 유학자들의 문학관은 시대별로 변모 양상을 보이는데, 근대로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19세기의 경우, 문학이 경세(經世)에 기여하고 도(道)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효용론, 개성과 정서를 중시한性情론(性情論), 중국문학의 모방을 거부하고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한 자주 문학론 등 세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23) 곁은이 교만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꾸며대는 일에 대하여 비판했다는 것은 개성적인 기교보다는 관료주의적 전통을 중시했다는 반증이 되며, 그래서 곁은은 효용론적 입장을 고수한 문인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III. 시의 양상

그러면 곁은의 시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앞서서도 지적했다시피, 곁은은, 시가 경세(經世)에 기여하고 도(道)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효용론적인 면에 그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문인이었다. 이 점은 기우만이 써준 곁은의 행장(行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공의 文章은 모두 經義를 따르데 반드시 理를 주장하였으며 華藻(화려하게 꾸밈)를 버린 格調가 높았으니, 우리 학자들 사이에 詩에 연구가 깊은 사람은 공의 시는 風雅의 體를 따랐다 하고, 文에 연구가 깊은 사람은 공의 文이 문맥도 통달하였고 이치에 적합하다 했으니, 이 밖의 일은 또한 공의 餘事라고 할 것이다.24)

22) 『論語』, 「陽貨編」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君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 草木之名.

23) 이상호, 「근대 전환기의 사대부 문학론」, 『漢文學論集』 8集, 1990 참조.

24) 『문집』, 「行狀」, 309쪽.

굴은의 문장은 경의(經義)를 따르되 반드시 이(理)를 주장하였으며,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격조(格調)가 높다는 평가이다. 그러면서 굴은의 시는 ‘풍아지체(風雅之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풍아(風雅)는 풍(風)·아(雅)·송(頌)으로 구성된 「시경(詩經)」과 다름 아니다. 시경의 풍(風)은 민간 가요 중심으로 엮여진 것이고, 아(雅)는 궁정·사회·전장·역사가 주무대이다. 이는 공자 시대부터 지식인의 교양으로 쳤는데, 특히 공자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육경 가운데서 「시경」을 첫머리에 두고 가르쳤다. 공자는, 시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의 발로로서 정서를 순화시키고,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는 전범(典範)으로서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자하(子夏)도 「시경대서(詩經大序)」에서 “풍이동지 교화이지(風以動之 教以化之)” 곧 풍(風)으로써 백성을 움직이고 이를 가르침으로써 민풍(民風)이 교화된다고 했다.

결국, ‘풍아지체(風雅之體)는 시경지체(詩經之體)’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조선조 유학자들은 시의 효용 가치를 끊임없이 풍교(風教)에 두면서 시작 활동을 전개했다. 굴은도 마찬가지였다.

閑居詩悔二首²⁵⁾

생겨난 물건마다 문채 없지 않으니, 솟구친 詩 생각하는 나를 괴롭게 하네. 풍경을 한가로이 버려 둘까 두렵고, 水石 대할 때마다 시상이 찾아드네. 흥이 나면 시를 쓰려고 붓을 빼어들고, 늙어간 수심 잊으려고 술잔을 부르네. 좋은 시절 기다려 시구를 찾으려면, 국화 소식 가지고 온 重陽에게 물어보소.	天生無物不成章 詩癢起人惱一場 但恐風煙閑置來 每逢水石入商量 興來得意仍抽筆 老去寬愁輒名山 且待良辰須覓句 黃花消息問重陽
名家들 기록을 一狀 안에 모았으니, 예와 지금을 알려면 문장을 읽어보소. 우리나라 선비들은 兩宋보다 많았고,	蒐畚名家足一狀 循環今古閱文章 東國先儒多兩宋

25) 인용시는 『문집』, 「詩篇」에 수록된 것으로 이후 출처 생략함.

西京을 지난 뒤에 三唐이 가장 좋아,	西京後代最三唐
千斤의 무게처럼 누가 붓을 잡을 것인가.	誰將筆力千斤中
문장을 얻으려면 강철처럼 단연하게	做得詞鋒百鍊剛
노령산 아래 늙은이 이 세상에 있지만	世有斯門蘆下更
알아주는 이 없어 홀로 방황하시네.	無人知己獨彷徨

귤은의 문집에서 구체적인 그의 시론을 찾기는 힘들다. 다만, 위의 인용시는 시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작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논시(論詩)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보거나 그의 시 310여 편을 살펴보면 풍교의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끊임없는 自己 省察

유가들에 있어서 수기(修己)의 문제는 인간 생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 이는 『대학』의 거경(居敬)·궁리(窮理)·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등 8조목에 근거하는데, 개인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거경(居敬)·궁리(窮理)·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은 수기(修己) 과정에 해당하고,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는 치인(治人) 과정에 든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귤은은 출사의 길로 나섰다가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수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런 연유 때문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그의 시문에는 자기 성찰을 도모하는 내용이 상당히 비중 있게 드러나 있다.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 같은 사람을 여우가 호랑이 노릇한다고 한다. 독살스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귀신과 물여우 같은 사람이다.

송백의 성질은 서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옥의 본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서 물들지 아니하여 곤궁해질수록 더욱 견고하니 장부의 지조가 아닌가. 태산처럼 높이 있을수록 揖讓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며, 강물처럼 깊이 받아들이는 도량이 있어서 부귀하여도 교만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군자의 경계하신 말씀

이 아닌가?

...(중략)...

아, 독서하는 너희들아. 우리 인간은 지극히 신령하다고 말하지 말고 때양 우리 학문이 독실하지 못한가를 근심하여야만 반드시 사물을 관찰한 후 법을 삼을 것이요, 사물을 통하여 지식을 얻으면 거의 그의 목적인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²⁶⁾

위에 인용한 글은 자기 스스로를 깨우치기도 하고 벗들을 경계하기 위한 「자경설(自警說)」의 일부이다. 요약하면, 잘난 체 하지말고, 독한 사람이 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공부에 매진할 것을 이르고 있다.

自 悔

우리 집 고질병을 처리하지 못하였기,	自家痼病在淩巡
60년을 내려와 더욱 심해졌구나.	六十年來做甚人
내 인생 어촌 생활 버리지 못하고,	此生未祛漁村習
자주자주 사냥하며 술 마신 게 즐겁다네.	勝事時歸獵酒頻
선달이 가까워지자 매화는 꽃 필 생각하는데,	臘近梅胎方意思
깊은 밤에 촛불 밝히고 홀로 앉아 수련하네.	夜深燭跋獨精神
惺翁이 나에게 잠겼느냐고 물으시기에,	夏問醒翁能警否
쉬지 않고 공부하다보니 새벽닭이 울었다 대답했네.	孜孜一念到鷄晨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글은이 한 해를 그저 그럭저럭 보내다 보니 새해가 가까워 오고, 납일(臘日)이 되어서야 홀로 정신을 가다듬게 되었다는 술회를 하고 있다. 이런 자기 성찰의 작품은 또 있다.

自 憫

부모님을 봉양하려 온갖 고생 다하고,	艱辛滋味供親堂
한 동안 지리하여 병상에 누웠었지.	浹歲支離臥病床

26) 『문집』, 「自警說」, 226쪽.

기쁨으로 모여 노니 명절이 따로 없고, 유쾌하게 놀아대니 소년 시절 그림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칠석을 만났던가. 누 집에서 술 마시며 국화절 기다렸던가. 요즘에야 바야흐로 나의 不肖함을 알았으니, 뛰어 놀기만 하는 여흥은 다시는 없어야지.	好會仍念街飾席 勝遊都付少年場 何處時逢桐七夕 誰家酒待菊重陽 到此方知身不肖 更無餘興與翱翔
--	--

자민(自憫)이란 스스로 고민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수신을 위한 일종의 다짐 같은 각오가 스며 있음을 알게 된다. 또,

自 責

머리 희어지도록 칠십 평생 보냈으니, 나 같은 어리석은 생활 집안에서도 드물어. 술 깬 뒤에야 바야흐로 뉘우침이 따르고, 다른 시인들 평함에 내 잘못을 깨달았네. 천리 길을 직행으로 말 달려 가고 싶고, 하늘을 거리낌없이 깃을 펴 날고 싶네. 한평생 사는 집 문앞 길조차 모르고, 배 옷 잃은 이 신세로 물가에 서성대네.	白首童童七十幾 一生癡愛自家稀 酒從醒後方追悔 詩人評中始覺非 千里直通鬣角走 九天無礙羽毛飛 生來不識門前路 鰓覽滄溟一布衣
--	--

에서는 그가 말년에 인생 역정을 돌아보고 자책감에서 쓴 것 같은데, 벼슬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원망이 엿보이기도 한다. 벼슬 따위는 본인이 중도에 포기한 것인데, 뒤돌아보니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하고 자책하고 있다.

그러나 끝은의 그런 고민이나 원망 혹은 자책은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자족(自足)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歲 暮 書 悔

상자 속에 가득 찬 글을 십 년 동안 읽어서, 작은 재주로 하늘과 땅의 기초 원리 통하였네. 벼슬길에 오르지 못할 것을 비로소 알았건만, 나무하고 고기 잡으며 늙어갈 줄 그 누가 알랴.	十年讀破一床書 小窮才通混沌初 始信青雲沒階級 誰知黃髮老樵漁
--	--

한가롭게 바둑두니 신선 생활이 아닌가.
술동이 오래 비었으니 찾아온 손님 적구려.
숨어사는 이 생활 분수 따라 만족하니,
이 마음 지키며 넉넉하게 살리라.

紙局偷閑仙去近
沙樽久曠客來疎
隱逸生涯隨分足
好將心地自優如

고도(孤島)에서의 삶이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생활이지만, 그래도 학문을 닦았던 선비로서의 고향은 자기 성찰의 최종적인 귀착점이 벼슬에 있다가보다는 자기 성찰에 있음을 위의 <歲暮書悔>에서 확인할 수 있다.

閑 居

내가 사는 집 나 홀로 생각하니,
늙은이의 만년 생활 평상 하나면 만족하네.
물 속 대나무가 창에 푸른빛으로 비추이고,
차를 마신 주발에 맑은 향기 그윽하네.
벌들은 날마다 꽃을 찾아 날아들고,
송아지 먹이 봄 풀이 우리 안에 가득하네.
늙은이 즐거움은 도서에 있으니
한가로운 이 즐거움은 한 백 년쯤 지내겠네.

自家境界自商量
晚節便宜足一床
水竹當牕題綠色
山茶用椀酌清香
窠蜂日役花成蜜
圈犢春把草宿糧
老去圖書真樂在
優遊庶過百年場

안분지족이란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아니다.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철저히 부귀영화를 좇지만 적어도 고향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성찰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고향은 자신이 동료나 후학들에게 남겨준 많은 증시 속에는 <한거(閑居)>와 같은 그의 자기 성찰 후의 달관된 삶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다.

2. 自然 珍景의 美的 觀照와 意趣

아름다운 자연은 인간을 위한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기도 한다. 그래서 고향과 같은 유학자들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들은 자연이 결코 안식처만이 될 수 없고, 또 즐거움의 대

상만이 될 수 없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삶으로서 자연의 이법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인욕을 물리치고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성리학적 자기 수양의 가장 이상적인 도장이다. 성리학자들의 자연시는 대부분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²⁷⁾

그런데 자연시도 서경 묘사 위주의 시, 경에 취한 나머지 즐거움이 일어나는 정취의 시, 자연의 묘리를 터득하고자 한 뜻을 나타낸 이취시(理趣詩)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곽은의 경우,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을 관조적인 태도로 조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 자연에서 즐거움과 깨달음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사실이 그의 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서경을 관조적인 태도로 조망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거문도의 경치를 읊은 <삼호팔경(三湖八景)>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곽정 추월(橘亭秋月)

곽정엔 비 개이고 계수나무는 가을인데,	橘南晴天桂子秋
달 밝은 누대에서 밤을 즐기네.	風流每御月明樓
누대 머리 온갖 나무는 황금색인데,	樓頭千樹黃金色
그 빛 물에 비취 절승을 연출하네.	躍在江湖第一洲

죽림 야우(竹林夜雨)

뜰 앞엔 푸른 숲이 뽐뽐이 들어서 있는데,	滿庭森翠響林林
밤새도록 빗소리는 내 마음을 뒤흔들어,	竟夜銀玲攪我心
저 죽림칠현이 어렴풋이 생각나니,	晉代群賢遐入想
혜강의 거문고 소리인 듯, 완함의 휘파람 소리인 듯.	嵇琴阮嘯有餘音

석름 귀운(石凜歸雲)

절벽은 하늘에 닿아 날마다 구름인데,	絕壁當天日日雲
자세히 보니 그림도 같고 비단도 같구나.	細看如畫復如紋
아마도 선녀가 높은 산 위에서,	也應神女高唐上

27) 宋載邵, 『茶山詩研究』, 創作社, 1986, 116쪽.

안개 빛 비단 치마 곱게 걸치고 아스라이 돌아가나 봐. 飄渺歸來艷霧裙

<삼호팔경> 중 세수만 옮겨 본 것이다. 고훈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8곳을 선정했다. 가을 달빛 아름다운 고훈정(橋亭秋月), 밤비 내리는 죽림의 야경(竹林夜雨), 파도가 넘실대는 녹문(鹿門怒潮), 돛단배 귀항하는 백도(白島歸帆), 낙조 그만인 용만(龍巒落照), 명사십리 이곡(梨谷明沙), 불 밝힌 고깃배들(紅國漁火), 구름이 넘나드는 석름(石廩歸雲)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인용한 시는 그 중 셋인데, 모두 자연 진경의 사실적(寫實的)인 모습을 관조적인 태도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望 海

하백은 어찌하여 많은 海若을 알았을까.	河伯焉知海若多
壯生 방법 가졌으니 대방가라고 하겠네.	壯生許與大方家
넘실거린 호수를 물이라 하기는 어렵고,	江湖滿地難爲水
바다와 하늘 아득하여 그 끝은 모르겠네.	溟渤浮天不辨涯
구름 사이 기러기는 북쪽을 향하여 가고,	北去遲遲雲際鴈
밝은 달에 까마귀는 남쪽으로 날아가네.	南飛杳杳月明鴉
이따금 먼데서 거센 바람 불어와,	時有長風會事發
물결 위에 꽃송이를 잠깐 만드는구나.	須臾能作浪頭花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장면을 그리고 있다. 고훈은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자연 진경을 미적 대상으로 삼아 이를 관조적인 태도로 바라보다가 그 자연 진경에 취하고 만다. 다음 인용시를 보자

冬夜卽景

흥이 나자 갑자기 미치광이 되어,	興來便作子猷狂
산 북쪽 눈 개인 평상 위에 앉았네.	宛坐山陰雪後床
달이 뜨자 대나무는 그림자를 옮기고,	月到千竿移竹影
꽃송이에 부는 바람 매화 향기 보내는구나.	風搖數朶送梅香

영롱한 그림 같은 경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詩情 황홀하여 두고두고 생각하리.	畫意玲瓏看仔細 詩情恍惚久商量
한 평생 아끼던 많고 많은 경치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한 잔 술 다시 들어야지.	百年清賞知多少 分付兒童復一觴

누구나 선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경치에 취하게 된다. 이 시는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끝은이 자연에 대한 관조로부터 저절로 정취에 빠져 들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끝은의 자연시는 자연 경치에 대한 단순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관조적인 태도로 바라보면서 급기야 그 자연에 몰입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연 몰입 후에는 자신의 삶과 연계된 의취(意趣)로 종결되고 있다.

橘隱齋漫吟

조그마한 누른 빛깔 단적하고 청한한데, 가없는 높은 기상 하늘높이 솟아 있네. 속객이 아니 오는 신선 사는 창이요, 선계에 못지 않은 선추의 집이로세. 술맛이 익어가니 흥취가 절로 나고, 좋은 詩 이뤄지니 마음이 화창하네. 오늘의 어진 靈均 그 누가 되올는지, 楚詞의 여필로서 내 집을 기리노라.	小黃端的秘清佳 箇裏穹窿未可涯 玉局當窓無俗客 璇樞照屋近仙階 芳樽濃臭堪乘興 麗句疑香足暢梅 今日靈均云是孰 楚詞餘筆頌吾齋
--	--

자신의 정자에서 창문으로 바라본 자연이다. 자신의 정자를 신선이 사는 옥국(玉局)으로 비유했고, 자신은 거기에서 사는 신선 선추(璇樞)에 빗대고 있다. 그 선계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는다. 그 생활은 풍류가 아니다. 자연에 취한 채 다시 붓을 잡게 된다. 다음의 시를 보면 끝은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의취(意趣)에 있음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橋軒獨坐

호수의 맑은 경치 조용히 찾아드니,
 무엇 하러 먼 곳 찾아 유람하러 할 것인가.
 넓고 푸른 바다는 君子의 도량 같고,
 높이 솟은 푸른 산은 큰 스승 모습일세.
 진실로 엄한 스승 계실 것 같으니,
 큰 元氣모인 것이 우연한 일 아닌가봐.
 만물의 이치를 누가 능히 통달했을까.
 河南 땅 늙은이 그 이름 雍이랴오.

湖上清佳入靜中
 壯遊何待遠遊筇
 碧海舍弘君子量
 青山偃蹇大人容
 固知儼若眞師在
 不是偶然元氣種
 達觀誰能窮物理
 河南道與厥名雍

안전에 펼쳐진 자연에서 군자의 도량을 배우고, 스승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마침내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이밖에도 곽은의 아름다운 자연을 읊은 작품이 많다. 그런 작품을 분석해 보면 자연에 대한 관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의 이법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경향으로 귀결된다.

3. 現實의 批判的 認識

곽은이 살았던 당시는 전대로부터 이어온 삼정의 문란과 서학의 확산 그리고 서구 열강들의 노략질이 그대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은 응당 민중들이었으며, 뜻이 있는 사대부들 또한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곽은 역시 사회에 대한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다음 시에서 보면 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偶題

슬프다, 미친 늙은이 노래 한 곡 들어보소
 날로 변한 세속 인심 어찌하면 좋아.
 늙은이들 죽어가고 공자의 글만 남아 있는데,
 괴이한 사람 찾아와 말 같지 않은 말 많아졌네.

噫嘻狂與一高歌
 世道支離日降何
 老人西去遺經在
 怪鬼東來幻語多

뜯구름 같은 부귀는 그 누가 잡을 것인가?	富貴如雲誰執策
강가에 낚시하려 우장 엮은 이내 신세.	江湖釣雪我穿囊
요즈음 물든 세속 말끔히 씻으려거든	假令今俗回淸淨
만경창과 은하수를 곧 바로 쏟아야지.	直倒銀河萬斛波

偶題

서민들은 대부분이 굶주림에 허덕이니,	編戶飢寒近九分
公私간에 노략질 나날로 늘어나네.	公私鈔弊一紛紜
곶새거리 같은 이자놀이는 없어졌다 하지만,	雖云革去半羔利
아직도 저 사람들 龍馬文을 이루네.	況乃彼成龍馬文
중생들로 하여금 산부처 못될 바에,	若使衆生無活佛
차라리 한번 죽어 조물주와 즐기리라.	寧能一死樂眞君
백성들의 어려운 현상은 고금이 같은 것.	流民艱狀今如古
완안석이 떠난 것을 정협은 보았다네.	鄭來曾監安上門

같은 제목 별개의 작품인데, 다산 정약용의 사회시(社會詩)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사회시는 대개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그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다. 그러자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 고훈이 보았던 당시의 사회상이나 다산이 보았던 사회상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²⁸⁾ 두 사람 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용된 두 시는 사회시로 분류해도 손색이 없다.

水鳥

고기떼 노는 기미를 잘 살핀 너는	爾善機魚者
큰 강 얕은 강속을 모두 볼 수 있겠지.	大江闊淺深
살길을 피함은 모두가 같은데,	謨生皆一物
어찌 홀로 자신만이 살찌려 하느냐.	奚獨自肥心

28) 宋載邵, 위의 책, 57~65쪽 참조.

이 시에서 새는 수령과 아전이요, 고기 떼는 민중들을 상징한다. 이런 수법은 장흥의 존재 위백규(魏伯珪, 1727~1798)나 강진의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당시의 부정한 관리들을 고발하는 사회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²⁹⁾

遣憫奉呈金華旅丈

우리의 바른 道가 쇠퇴한 지 오래되니,	吾道委地久
은 세상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겨 있네.	舉世蕪晦冥
기나긴 어둠 밤이 어느 때나 밝아 오며,	長夜何時曉
꿈속의 이 몽매함이 어느 때나 깰 것인지.	大寐曷日醒
사나운 북쪽바람 비 눈을 몰아오고,	北風吹雨雪
눈 속의 찬 물결이 紅溟에 가득하네.	雪浪倒紅溟
사나운 저 厲階가 坦途를 이뤘으니,	厲階成坦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밝은 촛불 보게 됐네.	愚夫見已燭
검붉은 오랑캐 떼 제 맘대로 橫行하고,	紅夷既橫行
까마귀 귀신들이 또다시 肆毒하네.	烏鬼復肆毒
빌리어 묻노니 금산의 늙은 翁이	借問金山叟
그 무엇 하려고 이곳에 이르렀소?	到此曷爲營
기산 영수 이 두 곳은 허유 소부 처소이고,	箕穎巢許庄
商山四皓 바둑둔 곳 상락 땅이 아니던가?	商洛綺皓枰
아름다운 좋은 명산 어느 곳에 있을는지	何處名山好
그 곳으로 돌아가서 이 일생을 살고 싶네	歸歟寄此生

이 시는 자연에의 귀거래가가 아니다. 도덕의 무너짐에 대한 개탄이요, 사독(肆毒)한 외세들이 날뛰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그러면서 허유(許由)와 소부(巢父)가 세상을 피하여 은거했다는 기산 영수(箕山潁水)나 진나라 말년 하황공(夏黃公), 녹리(鹿李), 기이계(綺李季), 동원공(東園公) 등 네 백발 노인이 전란을 피하여 숨어들었던 상산(商山)과 같은 이상 세계를 갈망하고 있다.

29) 拙稿, 『存齋 魏伯珪의 文學的 基盤』, 『古詩歌研究』 第9輯, 2002, 223~251쪽 참조.

물론, 곽은의 시 전체를 일람하고 나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작품은 그렇게 노골적이거나 직설이지는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비판적 인식에 관한 한 존재나 다산보다는 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다. 다만, 곽은 자신이 벽지(僻地)에 은거하다시피 살고 있는 탓으로 문란한 현실 세계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실 세계의 비판적 인식을 결코 낮게 평가할 일은 아닐 것이다.

IV. 結論

필자는 지금까지 외로운 고도 거문도에서 태어난 문장가 곽은(橘隱) 김류(金澗)의 문학적 기반과 그의 시 양상을 그의 문집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해 보았다.

먼저, 곽은 생애를 「가덕편」과 「행장」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폈으며, 그의 생활 환경과 그가 살았던 시대의 거문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는 곽은 문학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었다.

곽은은 노사의 문하생으로서 그의 문학적 기반이 되는 사상적 배경도 스승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전제 아래, 잡설 등에 언급된 문학 사상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곽은은 스승처럼 개성과 정서를 중시한性情論(性情論)이나 중국문학의 모방을 거부하고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한 자주론보다는 경세(經世)에 기여하고 도(道)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효용론을 문학관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300여 편의 곽은 시를 살펴보면 그 양상은 대체로 첫째, 끊임없는 自己省察로 인해 달관된 삶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고, 둘째,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을 관조적인 태도로 조망하면서 의취를 나타내고 있으며, 셋째, 자신이 살았던 모순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처방으로 도의(道義) 존양(存養)에 무게를 두고 있다 등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물론, 곽은의 시 전체를 규격화하여 이 틀 속에 다 넣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곽은의 시에는 인간적인 끈끈한 인연과 정을 표현한 작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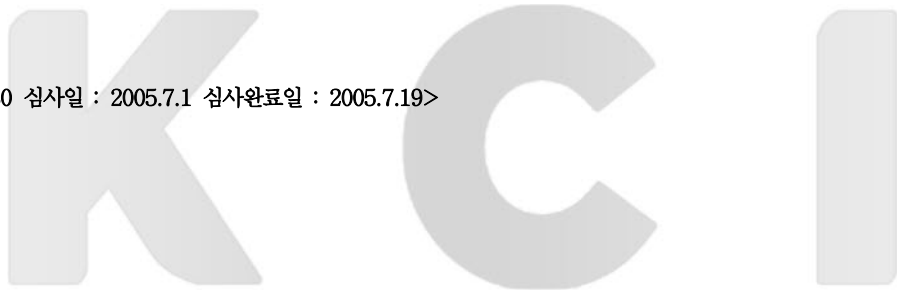
있고, 자연물을 그대로 노래한 것도 있다. 또, 멋스런 풍류 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미한 정도여서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필자의 과문 탓으로, 굴은 시의 한국문학사적 의의를 제시하지는 못하겠다. 다만, 외로운 고도에서 적지 않은 작품을 남긴 숨은 작가의 발굴 차원에서 이를 이해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숨은 작가의 발굴과 작품 분석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갖고자 한다.

참고문헌

- 金 澗, 『國譯橋隱齋文集』, 光州日報出版局, 1984.
『李朝王朝實錄』.
『論語』.
安晉吾, 『湖南儒學의 探究』, 以會文化社, 1996.
裴宗浩, 『韓國儒學史』, 연세대출판부, 1986.
이상호, 「근대 전환기의 사대부 문학론」, 『漢文學論集』 8集, 1990.
宋載邵, 『茶山詩研究』, 創作社, 1986.
拙稿, 「存齋 魏伯珪의 文學的 基盤」, 『古詩歌研究』 第9輯, 2002.

<투고일 : 2005.6.30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Abstract

A Study on literature Base and Poetic Aspect of Kim Lyu

Kim, Jun-ok

This paper is a result that analyze Kim lyu a good writer in the Yi Dynasty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 into his literatural view and poetic aspect.

He was born on 1814 in lonely Geomun island, Chennam. From his early days, he had been devoting himself to his studies under the influence of his parents, and finally he left for Seoul to take the state examination. On his way to Seoul, he met Ki Jeong Jin in Jang Seong whom he obeyed his teacher and studied deep into a Confucianism. At that time, a corruption of civil services, a proliferation of Roman Catholicism, and a intervention of foreign influence make a Nation disordered and he judged the reason for chaos by the collapse of Confucian idea. That being so, he mad a decision to study deeper and teach younger student.

He came back to his hometown Geomun island, after finishing his study, and spent his time gathering students and teaching Confucianism. He left many essays and 310 poetries under this process, and if we analyze his products, analysis showed that he was a sincere scholar. His poetry mainly express his eternal self-reflection, contemplation about beautiful nature, and critical recognition of contradictory world.

Kim lyu was not of high government position, and did not product

many records in his collection. However, in this paper, he was revealed that he did his duty as an intellectual idea. From now on, we should continue to find out unknown writers and analyze their products.

Key words : Kim lyu, self-reflection, contemplation, beautiful nature, critical recognition, contradictory world

K C I